

12월 8일 뉴스 종합 정리

2008년 12월 8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7

chlee@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고용쇼크 딛고 급반등 [다우: \$8,35.42pt (+ 3.09%)]	고용지표가 우려했던 것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장중반까지 급락세를 보였음. 그러나 고용지표가 역으로 경기 바닥을 의미할수 있다는 긍정론과 더불어 추가적인 정부의 부양조치에 대한 기대감이 저가매수 심리를 촉발시켰음. 거대 보험그룹 하트포드 파이낸셜이 수익전망을 상향하면서 금융주 강세를 촉발, 반등탄력을 더했으며, 주말을 앞두고 장 막판 '사자'주문이 몰리면서 1시간여동안 주요지수가 3% 이상 급등한 끝에 하루중 최고 수준에서 장을 마쳤음.
하트포드 '깜짝쇼'..투심 개선 일등공신	하트포드 주가는 전날에 비해 102.3% 폭등한 14.59달러로 마감했음. 하트포드는 이날 투자설명회를 통해 올해 주당 순이익 전망치를 기존의 4.70달러에서 4.90달러로 상향한다고 밝혔음. 라마니 에이어 대표는 "심각한 시장상황에도 불구하고, 영업실적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며 전망치 상향이유를 밝혔음.
유가 1주일새 25% 폭락 [WTI: \$40.81 (-\$2.86)]	국제유가가 6일째 하락, 배럴당 40달러선까지 떨어졌음. 1주일만에 25% 폭락, 주간 하락률로는 1991년 이후 17년만에 최대폭을 기록했다. 고용감소가 예상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에너지 수요감소 우려가 증폭되었음.
고용지표 악화, 모기지 연체도 최악	미국의 11월 실업률은 6.7%를 기록해 전월 대비 0.2%p 상승했음. 이는 시장전망치인 6.8%보다는 소폭 낮은 수준이었지만 1993년 이후 15년만에 최대치임. 비농업부문 고용은 무려 53만 3,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지난 1974년 12월 한달간 60만 2,000명이 실직한 이후 월간 기준으로 34년만에 최대 규모에 해당함.
中 11월 무역, 7년만에 첫 마이너스 성장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경제 침체로 이어지기 시작한 지난 11월 중국의 월별 무역수지가 7년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임. 중국 동방망은 6일 중국 해관의 기초 통계조사 결과 11월 무역수지가 수출 1천억달러, 수입 700여억달러 등 총 1,700억 달러로 지난해 11월에 비해 감소했다고 보도.
中 유류세 인상 등 유가개혁안 발표	중국 정부가 유류세 인상 등의 내용을 포함한 유가 개혁을 실시. 7일(현지시간)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재정부, 교통운수부, 세무총국 등은 지난 5일 웹사이트에 유류세 개혁안을 발표, 오는 12일까지 여론을 수렴할 방침. 시행 일자는 내년 1월1일.

제목	주요 내용
英-佛, 유럽 경제위기 정상회담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유럽의 경제 위기 타파책을 마련하기 위해 8일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6일 보도. 주제 바로수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동석한 이번 회담에서 유럽 정상들은 유럽 경제 활성화를 위한 카드로 2,000억 유로 지출 계획을 논의할 전망이다.
日 상장사 해외매출 8년만에 감소	일본 상장기업들이 수출시장에서 올린 매출액이 8년 만에 첫 감소세로 전환. 글로벌 금융위기로 전 세계 소비시장이 동시에 얼어붙은 데다 엔화 가치 초강세 기조가 맞물리면서 가격경쟁력이 악화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
한국경제연구원 “내년 성장률 2.4% IMF이후 최저”	선진국 및 개도국 경제 동반침체 등에 따라 수출증가세가 큰 폭으로 하락해 내년 경제성장률은 2.4%에 그칠 것으로 전망. 이는 지난 10월 발표한 3.8%에 비해 1.4포인트 하향 조정된 것. 다만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국제공조 및 국내 경기부양 노력의 영향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성장률이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관측
공기업 구조조정 “2만 6,000명 감원 예정”	정부는 방만한 경영요인을 제거하고, 불필요한 조직과 예산, 인력 감축을 통해 경영효율성을 10%이상 높을 것을 주문. 305개 공기업이 평균 10%씩 인력을 줄일 예정
하이닉스 임원감축, 희망퇴직... 고강도 자구책 추진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고통분담 및 자구노력 방안에 전격 합의함으로써 회사와 노동조합은 임원감축, 희망퇴직, 무급휴가 등을 공자로 하는 인력조정에 돌입. 이 같은 방안을 통해 15%이상의 실질적인 인건비 절감효과를 기대.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